9. 가족 정체성 Family Identity

역사적으로 10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나 지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찾았다. 어린이들은 최소한 10대가 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가족과 함께 형성한다. 현대에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가족 정체성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부모와 조부모가 누구인지 강조하는 것조차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는 초기 기독교 사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신약 시대

신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마1장). 그 당시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와 비슷한 족보를 갖고 있었다. 당신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몇 세대까지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증조부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고조부는 어떤가? 현조부는? 예수와 그와 같은 시대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댈 수 있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 않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더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조슈아 데이비슨(Joshua Davidson)'일 것이다.

주소록을 검색해 보면, 많은 이름이 'son'으로 끝나는 것을 알게 된다. 존의 아들은 존슨(Johnson)이고, 피터의 아들은 피터슨(Peterson)이다. 벤슨(Benson), 잭슨(Jackson), 로벗슨(Robertson), 스티븐슨(Stevenson), 윌리엄슨(Williamson) – 이 명부는 계속된다. 사실상,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 제이콥슨(Joe Jacobson)' 이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Jacob)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2장의 '다니엘과 에스더'에서 보았듯이, '성인식(bar mitzvah)'의 '바(bar)'는 '-의 아들'을 의미한다. 즉, 청년이 13세에 '언약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다. '바(bar)'로 시작하는 이름을 볼 때마다, 그것은 '-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소경 바디매오(Bartimaeus)' 즉, '디매오의 아들(son of Timaeus)'이 구걸하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막10:46-47).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17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일부 번역가들은 이를 '바요나 시몬(Simon Barjona)'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시몬, 요나의 아들(Simon, son of Jonah)'이라고 번역했다. '바-' 로 번역되든, '-의 아들'로 번역 되든, 이러한 구절들은 가족 정체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바(bar)'라는 것은 직계 생부의 아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조상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는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Davidson)'이라고 불려졌다. 가족 정체성은 생부보다 훨씬 전으로 올라가기에 '-의 자손(son of-)'이라고 하면 몇 세기 전에 있던 조상까지도 의미했다. 신약 성경 첫 절에서 보았듯이, 예수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족보가 '… 셋의 아들, 아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다 (롬11:1). 모든 유대인들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이요, 한 명의 야곱의 자녀가(바울은 베냐민 지파였다) 그의 조상이었음을 알고 있다. 가족 정체성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예전의 미국

가족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수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나의 할아버지 세대는 코테스키 가문의 내력을 자랑스러워 했다. 할아버지와 그의 남매들은 15세기경에 코테스키 가문이 보헤미아에 있을 당시 존 후스(John Huss)를 추종했던 때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당신은 아마 존 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어쩌면 보헤미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존 후스는 14세기 영국인 개혁가였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가 쓴 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이라면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것이다. 보헤미아는 지금 체코 공화국의 일부였다. 또 후스의 동상은 프라하에 많이 있다.

후스의 추종자는 후스파로 알려졌다. 후스가 교황의 무오성을 부인하고, 교회보다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한 후에 대다수의 후스파들은 보헤미아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모라비아로 가서 계속해서 그들이 보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모라비아인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존 웨슬리(John Wesley)가 18세기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 폭풍우 속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다. 웨슬리는 죽음 앞에서 평안한 그들의 모습이 놀라웠다.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우는데 있어서 모라비아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세기 중반에 살던 10대로서, 구전으로 전해진 ‘가족사’는 나에게 색다르기만 했다. 그 당시에 두드러지던 내면적인 개성 때문에 가족 정체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 정체성을 귀하게 여긴다. 가족 정체성의 중요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날 미국

가족 정체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 요인에 있지 않다. 흐르는 세월 속에 가치관이 변했으므로 사람들은 가족을 더 이상 예전같이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행위에 대한 생각 또한 변했다. 한 세기 전만해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렸을 만한 행동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여기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있다.

- **개성 Individuality**
  현재 미국 문화는 협력과 단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경쟁과 개인을 더 소중히 여긴다. 때때로 팀에게 영예를 돌릴 때도 있지만, 최고의 영예는 그 팀의 스타에게로 간다.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신이 혼자 성취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여긴다.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도움 없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끼고 싶어한다.
- **이혼 Divorce**
  20세기가 시작할 무렵, 연간 이혼율이 7%였다. 결혼은 평생 헌신으로 여겨졌고, 이혼한 사람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이혼은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라기보다 실패로 여겨졌다. 이혼하게 되면, 특히 ‘복잡하게 얽힌’ 이혼 일수록,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개 가족 정체성을 잃게 된다.
- **재혼 Remarriage**

결혼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 후에 새로운 결혼이 이어지기도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 어머니 쪽에 남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와 다른 성을 갖게 된다. 만약 그 부모가 다시 이혼한 후 (재혼한 부부에게 이혼이 더 흔한 편이다) 다시 재혼한다면, 청소년 자녀가 법적으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새 아버지와 댜른 성을 갖게 된다. 법적으로 입양되었다면 10대 자녀는 성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일련의 결혼은 가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 **미혼 커플 Unmarried couples**
  수백만의 커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 그 자녀가 어떤 이름을 사용하겠는가?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동거를 시작한다면, 가족 정체성에 혼란만 더하게 된다.
- **미혼모 Unmarried mothers**
  수백만의 미혼 여성들은 자녀가 있고 또한 그 자녀의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 일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모와 사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고 산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 아버지 부재인 상황에 있는 소년일 경우 특히 더 힘들다.
- **유동성 Mobility**
  1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부모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으며 가족들 곁에서 살았다. 일부 개척자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멀리 떠났지만, 대부분은 가족의 농장 근처나 친척들이 사는 마을에 머물렀다. 이모, 삼촌, 조부모, 심지어 증조부모와 가까이 있으므로, 어린이들과 10대들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여러 친지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 **테크놀로지 Technology**
  일과 놀이의 변화는 가족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초반에는 '가족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농장에서 잡초를 뽑거나 가축을 돌보며 살았다. 20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기업에 의해 경작되고 기계로 농사 짓기에 가족구성원간에 상호 작용이 적어졌다.

제3문화 청소년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많은 요인들이 가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다. 가족 정체성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문제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다. 다음은 가족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전해 볼만한 몇 가지 목록이다. 물론 모든 것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중 일부를 시도해 보는 것을 즐길 수 있을 지 모른다.

-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무엇이든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가족의 밤을 가져라.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 가족사진 앨범이나 스크랩북, 비디오를 함께 만들고 정기적으로 계속 추가하라.
- 온라인에 들어가 당신의 가족사를 검색해 보아라. 세계 어디에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가족 휴가를 갖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라.
- 여러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전통을 개발하라.
- 고국에 있을 때 가족 모임에 참석하라.
-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려라.
- 조부모에게 가족사에 대해 물어봐라.
-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집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인식시켜라.
- 한 주 동안 저녁시간에 TV나 비디오 없이 가족만의 시간을 가져라.
- 고국에 있을 때 친척들과 함께 머물러라.
- 당신의 성(family name)의 유래를 찾아보라.

-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외식, 좋아하는 곳 방문하기와 같은 가족으로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라.
- 부모님이 자라난 곳을 방문하고, 그들의 오랜 친구나 이웃하고 대화를 나눠라.
- 고국을 떠나 있을 때 당신의 조부모에게 적어도 매달 한 번 정도는 안부편지를 써라.
- 당신이 관심 있는 곳에 방문하기 위해 가족 외출을 하거나 다 같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하라.
-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가족으로서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가족회의를 하라.
- 적어도 주일날 한번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는 다른 예배에 참석해라.
- 가족끼리 농담하고 함께 웃어줘라. "프레리도그* 마을이 어디냐? (Where's the prairie dog town?)" 라는 질문에 우리 가정은 한바탕 웃는다.
- 만일 당신이 이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부모 양가에 대해 알아봐라.

* 다람쥐과 동물인 프레리도그 처럼 행동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드는 사람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